

무안~신안 52km 전력망 완성 호남 재생에너지 숨통 트인다

한전·기후부·전력거래소 발표
154kV 송전망 지난달 30일 준공
전남 출력제한 해제 82회로 급증
190MW 접속대기 해소 기대
도서지역 고난도 공사 마무리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을 연결하는 새로운 전력망이 완성됐다. 그간 호남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현상이 완화되고, 전력 계통 연계가 기다리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접속 대기 현상도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라남도 무안군과 신안군을 잇는 154kV 송전망(전남 운남-신안-읍동 간, 총 연장 52km)이 지난 달 30일 최종 준공됐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기상 변화에 따른 전력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됐다.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전력 계통 안정화를 위해 발전량을 강제로 조절하는 '출력제어' 조치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전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횟수는 2023년 2회에서 2024년 27회, 2025년 82회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 무안과 신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송전망이 가동되면서 생산된 전력을 인근 수요지로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전 측은 이번



154kV 무안-신안 간 송전선로 사업. /한전

전력망 확충을 통해 전남 지역의 출력제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그동안 전력망 용량 부족으로 계통 연계를 시도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던 약 190MW 규모의 재생에너지 접속 대기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된 송전망 구간은 대부분 도서(섬) 지역으로, 건설 과정에서 지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됐다. 섬과 섬을 무려 22번이나 횡단해야 했으며, 섬 사이의 최대 선로 길이는 2km에 달했다. 특히 전선을 지탱하기 위해 세워진 철탑의 높이는 263m로 국내 최고 높이이다.

한전은 이러한 난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철탑조립 전용 크레인 개발 ▲특수

전선을 활용한 철탑 높이 최적화(축소) ▲친환경 진입로 부설 공법 등 신기술과 신공법을 대거 도입했다. 그 결과 지형적 제약과 위험 요인 속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무재해 준공'을 달성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 가속화와 첨단 전력산업 등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전력설비 건설사업이 전국의 다양한 지역과 지형적 제약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韓·카자흐, 원유 도입 안정화 협력 강화

김정관 산업장관, 카자흐스탄 공동위 개최
CEPA·기업으로 해소 등 방안 논의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인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장관과 에너지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국내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예르사인 나가스파예프(Yersayn Nagaspayev)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장관과 '제11차 한-카자흐스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개최했다.

공동위는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1992년 발효)에 따른 최고우급 협의체로, 2024년 5월 회의 이후 2년 만에 열렸다.

양측은 이날 공동위에서 ▲무역·투자 ▲에너지·자원 ▲건설 ▲디지털·지식재산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 투자 분야에선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한-카자흐 CEPA' 체결 추진 방안을 논의했고, 현지 진출한 전자·자동차·플랜트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애로 해소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양측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원유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예를란 아켄제노프 에너지부 장관과 별도 면담에서도 지난 4월 강훈식 전락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의 카자흐스탄 방문 이후 원유 도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리 기업이 수주한 카라차가낙 가스처리 플랜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에카바투스 발전소 현대화 사업이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정위, 납품업체·대리점 이익률 첫 조사

유통·대리점 5만 7000여곳 대상
거래 집중도·대기업 의존도 파악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대리점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납품업체와 대리점의 영업이익률과 거래 집중도를 처음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8일 유통분야와 대리점분야의 '2025년도 거래 전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통분야의 경우 백화점·온라인쇼핑몰 등 9개 업태 43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및 매장임차인 7600여 곳, 대리점분야는 식음료·화장품 등 22개 업종의 공급업자(회사) 521곳과 이들 거래하는 대리점 5만 곳 등 총 5만 7000여 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서는 갑을 간의 실질적 협상력 격차와 구조적 종속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의 거래구조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력 격차에 대해 파악·분석하기 위해 거래선 다변화 정도 및 거래 집중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납품업체·대리점 등을 (乙)측 사업자의 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거래개선 정도를 함께 파악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 집중도는 현재 거래 중인 대기업 수와 상위 3개사에 대한 거래금액 비중 등을 통해 파악된다. 을의 마진율과 특정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수치화해 갑질의 구조적 환경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분야 조사에서는 메서운 성장세를 보이면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던 '온라인 쇼핑몰'이 핵심 타깃이다. 공정위는 최근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거래 행위와 납품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경험하거나 인지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살이 확인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환경산업기술원 폐수소차 핵심부품 순환자원으로 재활용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폐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재사용·재활용하기 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폐수소자동차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어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구동모터 등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을 추진한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408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잔류수소 안전 제거 및 핵심부품 해체 ▲수소저장용기·연료전지 재사용 발전시스템 개발 ▲폐구동모터 영구자석 회수 및 친환경 고순도 희토류 소재화 등 3대 분야의 기술 개발에 나선다.

우선 수소저장용기에 남아 있는 잔류수소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수소자동차에 장착된 연료전지 스택, 수소저장용기, 구동모터 등 주요 핵심부품의 재사용·재활용 가능 여부 등 상태 확인을 위한 성능평가 기술을 개발한다.

수명이 남은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저장용기의 경우, 건설현장·도서지역·선박 등에서 전기 발전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군 장병 사회복귀 기술교육 확대

한국폴리텍대 전·현직 장병 지원
제대군인 재취업 성공 사례 주목
취업맞춤특기병 프로그램 운영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전·현직 군 장병들의 사회 복귀와 역량 강화를 돕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기술교육 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8일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육군 부사관으로 25년간 나라를 지켰던 조승길(48)씨는 제대 후 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에 입학해 자동차 제어비사로 제2의 인생'에 성공했다. 군 생활만 해온 그에게 처음 접하는 전기·전자·소프트웨어 이론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폴리텍대학의 강점인 실제 차량과 장비를 다루는 철저한 실습 중심 수업이 돌파구가 됐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조씨는 자동차 관련 자격증 4종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고, 현재는 르노코리아 강릉 정비사업소에서 담당차량 정비사로 제2의 서막을 열었다.

조 씨는 "새로운 시작은 두렵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제2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자동차정비 기능장 취득을 목표로 다음 도전을 준비 중이다.

폴리텍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최신 장비와 고도화된 인프라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꿈드림공작소'를 통해 현역 장병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성남캠퍼스는 지난 2024년부터 국방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전역예정 장병들이 자동차 장치 제어 및 반도체 공정 직업 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폴리텍대학

직교육원과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군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4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분기별 1회씩 총 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3월 40명이 교육을 마친 데 이어 이달(6월)에도 50명의 장병이 교육을 앞두고 있다.

춘천캠퍼스는 지난 4월 중순 제13기계화보병여단과 협업해 장교 및 부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운용 심화과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군부대 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양 기관은 추가 일정을 협의해 하반기에도 확대 교육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협, 중소농 스마트팜 2000곳으로 확대

농정대전환 맞춰 43개 과제 추진
계절근로 5039명 공급 예정

농협이 중소농 대상의 스마트팜 보급을 늘리고 한우뿌리농가 육성에 나선다. 이 같은 핵심 사업에 매진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조성 및 농촌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정부의 '농정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농정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43개 농정 중점 추진과제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이동장터 ▲한우뿌리농가 육성 등이다. 농촌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둔다.

우선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중소농 중심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위해 지난해 1600개소에서 올해 2000여 개소로 확

대해 보급한다. 또 현장 중심의 스마트팜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육성과 농촌 인력난 해소에도 힘쓴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경우, 운영농협 142개소를 확정해 올해 5039명의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2030년까지 운영농협을 200개소로 확대한다.

지난 3월에는 창업농지원센터에서 '2026년 농협청년농부사관학교 졸업생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이어 한국농수산대학과 공동으로 '농산업 밸류체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책임형 농정 강화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한우뿌리농가 육성사업 참여 축협 96개소와 농가 8526호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 및 농가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